

## 아르헨티나 자동차 산업 동향

- 아르헨티나 자동차 제조업협회(ADEFA) 자료에 의하면, '09년 10월 기준 아르헨티나 자동차 생산대수는 5만7400대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 대비 1% 정도 감소
  - 당초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자동차산업의 침체 전망과는 달리 아르헨티나 자동차 생산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전문가들은 2010년 경기회복이 되면서 아르헨티나 자동차 생산대수가 7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 약 90%는 브라질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고, 자동차 최대수입국인 브라질의 경제가 지금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가	총계	비중(%)
브라질	221,991	89.3
멕시코	12,568	5.1
우루과이	4,008	1.6
유럽	2,194	0.9
콜롬비아	2,125	0.9
미주	1,880	0.8
칠레	1,348	0.5
아시아	1,047	0.4
아프리카	409	0.2
페루	318	0.1
중미	281	0.1
호주 및 뉴질랜드	212	0.1
베네수엘라	137	0.1
에콰도르	80	0.0
남아공	1	0.0
총계	248,599	100

자료원 : ADEFA

- 현재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자국 내 생산 및 중남미 국가들에서 수입된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 등 MERCOSUR 및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그 밖의 수입제품에는 35% 이상의 높은 관세가 적용 중
- 이에 따라 자동차 수입의 경우 브라질산 자동차 제품 수입이 72%를 차지하고, 2007년과 달리 2008년에는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8%로 증가하였으며, 그 뒤로 멕시코, 일본, 독일, 한국, 미국 순으로 자동차가 수입
  -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08년 하반기부터 아르헨티나 내수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7년 1.8% 대비 2008년 2.2%로 수입비중 증가

원산지	2008년	비중(%)
브라질	310,332	72.2
중국	34,541	8.0
멕시코	31,134	7.2
일본	9,757	2.3
독일	9,368	2.2
한국	9,251	2.2
미국	7,934	1.8
칠레	4,331	1
벨기에	3,732	0.9
프랑스	2,525	0.6
우루과이	1,784	0.4
파나마	1,739	0.4
기타	3,161	0.7
총계	429,589	100

자료원 : ADEFA

-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장려를 위해 자동차 부품 수입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 활성화를 시켜 향후 고용창출효과 및 국내 자동차산업 진흥을 목표로 자동차 부품 제조 활용 업체에 법적 혜택 제공을 추진 중

<사옹파울루 사무소 제공>